

## 석주 권필의 〈感懷 3首〉 연구

황수정\*

### 차 례

1. 머리말
2. 시국에 대한 비애감
3. 냉철한 현실 인식과 풍자
4.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
5.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석주 권필의 〈감회 3수〉를 연구한 것이다. 〈감회 3수〉에 나타난 진정성을 고찰하였다. 감회시(感懷詩)는 감구지회(感舊之懷)의 시로 마음에 느낀 생각과 회포(懷抱), 감상(感想) 등 지난날을 생각하며 느낌이 일어 쓴 시를 말한다. 이처럼 감회시는 보통의 느낌과 서정, 또는 제목 달기가 모호한 서정시일 경우 감회의 제목을 달기도 한다.

석주의 〈감회 3수〉는 시국에 대한 강한 페이소스와 지식인로서의 자세를 담았다. 석주의 감회시에서는 주로 나그네의 회포 등을 다룬 내용이 많다. 그러나 〈감회 3수〉는 감회에 의탁하여 시국에 대한 근심과 비판을 진솔하게 그려냈다. 〈감회 3수〉에서 보여준 시인의 진솔한 정회(情懷)는 감회시의 진정성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감회시에서는 세월의 덧없음, 인생무상, 곤궁함, 정치적 불운에 대한 회포를 읊는다. 〈감회 3수〉에서는 시국에 대한 비애감과 냉철한 현실 인식과 풍자, 그리고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를 실었다. 백성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조선의 산천과 백성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였다. 〈감회 3수〉는 세 수의 연작시로서 개인적인 정치적 불운과 침울에만 머물지 않았고, 시대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함께 지식인으로서 절조의 자세를 담은 것이다.

**핵심어** : 석주 권필, 〈감회 3수〉, 비애감, 현실 인식, 절조.

\* 조선대학교

## 1. 머리말

본고는 석주(石洲) 권필(權韜, 1569~1612)의 <감회 3수>에 대한 연구이다. 석주는 조선 중기 질곡의 시대를 누구보다 냉철하게 살고자 했던 시인이다. 일자오서(一字誤書)로 과거에 낙방하여 벼슬의 길은 접었으나, 그의 예리한 붓끝은 시대의 아픔과 군자의 이상을 담기에 충분하였다. 석주의 뛰어난 시재(詩才)는 당대에 이미 평가받아서 신축년(辛丑年)인 1601년 원접사(遠接使)로 떠나게 된 이정구(李廷龜)가 종사관으로 석주와 함께 갈 것을 간곡하게 청한 바 있다.<sup>1)</sup> 당시 선조는 석주의 시문을 보고 크게 감명하여 관직을 주었으나, 석주는 이를 받지 않고 백의로 종사하였다. 석주는 사람들이 벼슬을 권하면 못들은 듯 시만 읊으며, 거리낌 없이 즐기는<sup>2)</sup> 삶을 살았다.

그동안 석주의 시적 성취는 다방면에서 연구되었다.<sup>3)</sup>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감회시를 주제로 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동안의 논고 중에서 감회시의 일정부분을 논한 연구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논문으로는 감회시에 대한 것으로, 두목(杜牧)의 고시 <감회(感懷)> 1수를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sup>4)</sup>

- 
- 1) “月沙李公廷龜爲僮，將行。啓曰 自前待華使，必廣選文人，爲製造述官。幼學權韜，甚有詩才，雖在布衣，名聲藉甚，請帶去。上允之” (尹拯, <童蒙教官贈司憲府持平權公行狀>, 『明齋先生遺稿』卷之四十三, 行狀)
  - 2) “汝章早拋舉子業，除官皆不就，寓居湖上。家貧妻子恒有飢色，而人或勸其仕，哦詩若不聞，樂弛置自放。” (李廷龜, <石洲集序>, 『月沙先生集』卷之四十, 序 下)
  - 3)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권순열, 「石洲 권필 연구」,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3, 169-194쪽; 성범중, 「석주 권필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 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429-461쪽; 황수정, 「석주 권필 제화시(題畫詩)의 형상화 방식」,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311-340쪽; 황수정, 「<題群山二友圖>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55-184쪽 등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와 최근의 연구까지 참조할 만하다.
  - 4) 김숙현, 「석주 권필의 우연풍자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정민, 앞의 책, 353쪽; 권영우, 「석주 한시 연구」, 계명대 대학원, 1988, 25쪽; 문범두, 「석주 권필의 사회시 연구」, 『영남어문학』 25집, 영남어문학회, 1994, 10쪽; 김성진, 「杜牧 <感懷詩> 試探」, 『中國學研究』 5, 중국학연구회, 1990, 55-83쪽; 文明淑, 「梅堯臣時 研究」, 『論文集』 21, 聖心女子大學校, 1989, 55-76쪽 등이 있다.

감회시는 <감우>·<견흥>·<견회> 등의 제명으로 삼은 작품들처럼, 서정성을 바탕으로 정회를 드러낸 것이다. 17세기에는 『文選』의 詠懷詩를 계승한 朱子의 <齋居感興>의 영향을 받은 고시가 성행하기도 하였다.<sup>5)</sup> 석주의 감회시는 시제(詩題)에 감회(感懷), 술회(述懷), 서회(書懷), 여회(旅懷), 추회(秋懷), 유회(幽懷) 등이 들어간 작품이 다양한 시체(詩體)의 형태로<sup>6)</sup>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주로 나그네의 회포를 담은 내용들이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도 감회시에서는 세월의 덧없음, 인생무상, 곤궁함, 정치적 불운에 대한 회포를 읊는다.

그러나 석주의 <감회 3수>는 시국에 대한 강한 폐이소스와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를 담았다. 즉 감회에 의탁하여 시국에 대한 근심과 비판을 그려냈다. 또한 그의 감회시 중 연작시 형태로 3수를 보여준 것은 <감회 3수> 한 편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석주의 <감회 3수>에 나타난 진솔한 정회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작시 3수가 보여주는 각각의 의미를 통해서 <감회 3수> 전체를 관통하는 진정성<sup>7)</sup>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감회 3수>의 내용 중심으로 단락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석주 감회시 연구에 대한 일고(一考)로 향후 그의 감회시에 대한 주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 2. 시국에 대한 비애감

석주는 1587년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 모두 장원을 하였으나, 글자 하나

- 
- 5)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2, 참조.  
 6) 五言古詩(8題 10首), 七言古詩(1題 1首), 五言律詩(15題 18首), 七言律詩(7題 9首), 五言絕句(3題 3首), 七言絕句(13題 13首), 雜體(7題 9首) 등이 있다.  
 7) 『論語』, <爲政> 편에서는 “시경 삼백 편을 한 마디로 말 하면,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詩三百一言以蔽之 曰思無邪).”라고 하였다. 『詩經』의 詩를 대표하는 말이다.  
 진정성(眞情性)은 감정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진실성, 진본성, 독창성 등의 뜻을 갖는다. 대개 진정성은 우리 내면의 자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감정의 크고, 작은 굴곡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특별한 효과를 거둔다. 따라서 좋은 예술 작품이란 일상적 현실에서 발견한 삶의 진정성을 개성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진정성은 문학 등 주로 예술작품에서 감정의 진실성 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강준만, 『생각의 문법』, 인물과사상사, 2015, 203쪽; 윤정구,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한언, 2012, 22쪽 참조.

를 잘못 쓴 것이 밝혀지면서 합격이 취소된 경우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후 시주(詩酒)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다. 그 후에도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事)의 일이 빌미가 되어 1591년 왕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일어난 신묘당사(辛卯黨事)로 동인에 의해서 서인인 스승 정철이 실각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sup>8)</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석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환멸과 과거에 대한 미련을 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석주는 1592년 임란이 발발하자 왜란의 책임을 묻는 상소를 올렸었고, 이어서 1597년 정유재란에는 전투에 참가했던 매부 윤진의 죽음과 누이의 자결을 겪었다. 그해 나주에서 일시 의병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인적인 고통과 국가적인 혼란 속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그의 시 <감회 3수> 중 1수<sup>9)</sup>는 26구로 이루어졌다. 내용 전체의 의미 중심으로 4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대에 대한 비감의 표현과정을 알 수 있다. 감정의 순차적 진행으로 시의 흥취를 일으키는 데 동적인 측면을 부여하면서 시의 역동성을 추구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자연에서 치유책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단락별 중심어로는 1단락은 ‘불락(不樂)’, 2단락 ‘미인(美人)’, 3단락은 ‘초혼(楚魂)’, 4단락은 ‘방준(芳樽)’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그의 비애감(悲哀感)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今日忽不樂	오늘은 갑자기 즐겁지 않아
杖策登北林	지팡이를 짚고 북쪽 숲에 올랐네.
雪消遠山淨	눈이 녹아 먼 산이 깨끗하고
日落浮雲陰	해가 저 뜬구름이 짙네.
蕭蕭叢薄間	쓸쓸한 나무 덩굴 사이에서
磔磔喧衆禽	짹짹거리는 여러 새들이 시끄럽네.
衆禽各有侶	여러 새들은 각기 짝이 있건만
客方方獨吟	나그네만 바야흐로 홀로 흥얼거리네. <sup>10)</sup>

8) 심경호, 「해제」, 『국역 석주집1』, 민족문화추진회, 2006, 8-9쪽 참조; 권순열, 앞의 논문, 180쪽 참조.

9) 권필, <感懷 三首> 중 1수, 『石洲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75, 한국고전번역원. 이하 시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이 시는 <감회 3수> 중 첫 번째 수의 1단락이다. 시인이 자연과의 어울림을 통해 자연스런 감정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쓸쓸한 정조이지만, 그 안에서도 청각적인 면모를 담음으로써 역동적인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문득 즐겁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북림(北林)’에 오르는 것으로 시의 첫 구절을 시작한다. 시의 흥취를 일으키는 데 동적인 측면을 부여하면서 시의 역동성을 추구하고 있다.

3-7구에서는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눈이 녹아 먼 산이 깨끗하게 보이고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의 구름이 짙어짐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감성에서 시인은 청각적 감성으로 바로 이동한다. 5-6구에서 ‘소소(蕭蕭)’와 ‘책책(磔磔)’의 접어 사용으로 음영성을 살리고 있다. ‘총박(叢薄)’은 무성하고 뻑뻑한 풀 무더기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책책(磔磔)’으로 참새 소리의 구체화를 꾀하였다. 이로써 1-2구에 대한 분위기 전환이자 시인의 ‘불락(不樂)’의 원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7-8구에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로 집중한다. 시의 기세(氣勢)를 ‘불락(不樂)’으로 시작하여 ‘소소(蕭蕭)’와 ‘책책(磔磔)’으로 시인의 정회를 정점으로 삼았다. 또한 8구의 ‘독음(獨吟)’으로 시의 긴장감을 풀고 있다. 자연의 밝고 깨끗한 분위기와 세상의 시끄럽고 소란스런 상황 속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홀로 시를 읊조리는 고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美人在天端	미인은 하늘의 끝에 있어
悵望傷我心	쓸쓸히 바라보니 내 마음이 슬프네.
巾車欲有往	휘장 친 수레를 타고 가고 싶지만
道路多嶇嶮	도로가 험난함이 너무 많네.
鳩來理舟楫	돌아와 배와 노를 손질하지만
滄海闊且深	창해는 넓고도 또 깊기만 하네.
坐看高飛鴻	앉아서 높이 나는 기러기를 보니
涕下沾衣襟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네. <sup>11)</sup>

10)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1수, 1-8구.

11)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1수, 9-16구.

이 부분은 시의 2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단락의 중심어는 ‘미인’이다. 미인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위 1단락 7-8구에서 보여주었던 고독하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외로움에 접근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은 임금과의 거리감, 즉 시국에 대한 걱정과 슬픔을 담고 있다. 미인에 대한 비유와 중의법을 알 수 있다. ‘구금(岫嶽)’은 산세가 험준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걸내(鳩來)’는 돌아옴 또는 도래(到來)를 말한다. ‘걸(鳩)’은 어조사로 의미가 없다. 정치의 중심부가 아닌 재야에서 보는 실태로 시끄러운 소리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사에 대한 토로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로 인한 진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에 의탁하여 자신의 심중을 그려내고 있다. 범중엄<sup>12)</sup>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아예 내가 일찍이 옛 성현의 마음을 찾아보니, 간혹 이 두 가지 경우의 행위와 다름은 어찌서인가? 외물(外物)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서, 묘당(廟堂)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백성들을 근심하고, 강호(江湖)의 먼 곳에 처하면 그 임금을 근심하니, 이는 나아가서도 또한 근심하고 물러나서도 또한 근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 한 뒤에 즐거워해야 하지 않는가?” 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겠는가!<sup>13)</sup>

이 부분은 <악양루기>의 끝 부분에 해당한다. 범중엄이 포의로 천하를 경제(經濟)하려는 큰 뜻을 품으며 했던 말이 “천하의 근심을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기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정에 있을 때는 백성을 걱정하고 재야에 있게 되면 임금을 근심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석주는 일자오서(一字誤書)로 평생 포의로 지내면서 조

12) 范仲淹(989-1052)의 자는 希文, 시호는 文正이다. 사대부의 모범적 인물로 꼽히며 북송 때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며 교육자이다.

13) “嗟夫, 予嘗求古仁人之心, 或異二者之為, 何哉. 不以物喜, 不以己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噫 微斯人, 吾誰與歸.” (范仲淹, <岳陽樓記>, 『古文真寶』)

정에 대한 근심과 백성들의 삶의 피폐함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지식인으로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추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인을 언급하고 ‘상아심(傷我心)’을 표출하였다. 이는 결국 16구 ‘체하침의금(涕下沾衣襟)’으로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으로 근심을 드러낸 것이다. 미인에 대한 연민과 ‘건거(巾車)’와 ‘창해(滄海)’를 통한 세상에 대한 관심과 불울(佛鬱)을 담았다. 끝으로 ‘체하(涕下)’로써 깊은 시름과 비애감을 실었다.

夜歸寒檐臥	밤에 돌아와 차가운 처마 아래 누워
夢行湘水潯	꿈에 소상강 물가를 찾아가네.
臨水弔楚魂	물에 임하여 초나라의 혼을 위로하는데
碧水空沈沈	푸른 물만 속절없이 깊고 깊네.
回首叫虞舜	고개를 돌려 순임금을 부르는데
但見雲外峯	다만 구름 밖의 산봉우리만 보이네. <sup>14)</sup>

이 부분은 3단락으로 시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앞 두 단락에서 자연과 창해를 언급했다면, 여기서는 시점의 전환과 공간을 변환시켰다. 즉 밤이라는 시간의 설정으로 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침(檐)’이라 하여 공간을 방안으로 변환시켰다. 꿈으로의 진입을 표현하며 시인의 비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침와(檐臥)’는 처마 아래 누웠다는 말로 곧 방에 누웠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2단락에서 보여주었던 슬픔의 감정을 꿈속의 상황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순절과 지조의 넋을 우러르는 마음을 꿈속의 상황에서 드러내고 있다. 꿈속에서 상수 가를 거닐었음을 그리고 있다. 물가에서 초나라의 넋을 조문한다고 하였다.

‘초혼(楚魂)’은 초나라의 혼이라는 뜻으로 떡라수에 투신해 자살한 굴원(屈原)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푸른 물은 속절없이 ‘침침(沈沈)’이라 하여 말없는 물은 깊고 깊은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시국에 대한 깊은 비애감과 상심은 시인의 충심(忠心)에 맞닿아 있다.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 전체를 꿈속의 상황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시 중간에 꿈속과 연계하여 각(覺)과 몽(夢),

14)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1수, 17-22구.

또는 몽과 각의 상황으로 시적 상황을 형상화한다. 이는 시인의 깊은 감성을 돌려 말하는 기법으로 그의 감회시에 드러난 짙은 페이소스가 강조된다.

古有遠別離	옛날에도 멀리 이별함이 있었으니
此恨寧獨今	이 한이 어찌 다만 지금뿐이겠는가?
去去勿復念	가고 가면서 다시는 생각지 말고
芳樽聊自斟	향기로운 술이나 잠시 스스로 따라 마시자. <sup>15)</sup>

이 부분은 <감회 3수>의 첫 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한다. 여기서 앞서 3단락의 꿈속 상황을 벗어나서 시인의 생각과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굴원이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모함을 받아 쫓겨나는 신세로 깨끗하고 깨끗한 몸으로 어찌 더럽고 더러운 먼지를 무릅쓰겠는가! 하였던 외침은 곧 석주의 외침이 되었다. 또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순임금을 따라 죽음에 이르렀던 아황과 여영의 이별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그들이 지니고 죽었을 한(恨)은 곧 시인, 석주의 한이 되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석주가 지닌 한(恨)과 비애감은 곧 굴원의 이별과 오버랩되면서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이별 때문에 생겨난 한(恨)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석주는 ‘거거물부념(去去勿復念)’을 외치며 ‘방준(芳樽)’의 향기로운 술로써 회포를 풀고자 하였다. ‘자斟(自斟)’은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것으로 자작의 의미이다. 술은 곧 현실과의 벗어남을 뜻하며 순간의 작은 즐거움이다. 시대의 불운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포기가 아닌 자신에 대한 위로이며 자기 치유의 한 방책인 것이다. 이는 마치 도연명(陶淵明)이 <책자(責子)><sup>16)</sup> 시에서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는 다섯 아들에 대한 실상을 묘사한 끝에, “천운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우선 잔 속의 술이나 마시리라(天運苟如此, 且進盃中物).”라고 하였던 바를 상기시킨다.

15)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1수, 23-26구.

16) “白髮被兩鬢, 肌膚不復實. 雖有五男兒, 總不好紙筆. 阿舒已二八, 懶惰故無匹. 阿宣行志學, 而不愛文術. 雍端年十三, 不識六與七. 通子垂九齡, 但覓梨與栗. 天運苟如此, 且進盃中物.” (陶淵明, <責子>, 『陶淵明集』)

여기서 도연명이 결코 부족한 자식들에 대한 포기가 아니듯, 석주 또한 정치적 혼란과 외척의 기세가 들끓는 시대의 혼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국에 대한 깊은 비애감을 안은 채 자신에 대한 작은 위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석주는 시국에 대한 페이스스에서 ‘요자집(聊自斟)’이라 하며 잠시 한 잔 술의 그늘에 쉬고자 한 것이다. 이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자구책이다. 시에서 표상되는 술[酒]의 의미 중에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거나 휴식, 흥겨움 등이 있다. 여기서 석주가 보여주는 ‘방준(芳樽)’의 의미는 삶의 고뇌에서 잠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는 치유, 섬의 의미이다.

이처럼 석주가 감회시를 통해 시국에 대한 비애감의 정회를 드러낸 작품으로는 <서회(書懷)>(『石洲集』 卷之七, 七言絕句), <건체체 술회(建除體述懷)>(『石洲集』 卷之八, 雜體) 등이 있다. 특히 <고양으로 가는 도중에 백골을 보고 느끼어 짓다(高陽途中見白骨感而作)>(『石洲集』 卷之六, 五言絕句)에서는 “쑥대를 짓히고 백골을 가리키며, 묻노니 그대는 어느 때의 사람인가. 미물인 새도 오히려 무덤이 있는데, 그대를 위해 한차례 수건을 적시노라(擣蓬指枯骨, 問君何代人. 微禽尚有墓, 爲爾一沾巾.)”라고 한 바가 있다. 미물인 새도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백골이 수습되지 못하고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비참한 시국에 대한 짙은 페이스스를 드러낸 바가 있다.

### 3. 냉철한 현실 인식과 풍자

이 장에서는 <감회 3수>의 두 번째 수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감회 3수>의 두 번째 수에서는 권필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풍자를 엿볼 수 있다. 참새와 마른 갈대, 그리고 부서진 등지와 ‘위연풍(喟然風)’으로 세차게 부는 바람을 묘사하고 있다. 우의적인 비유를 통해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등지 속에는 알까지 있었다. 즉 많은 어린 백성이 그 불안한 등지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모습을 빗대고 있다.<sup>17)</sup> 이는 조선 산천의 피폐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17) 풍자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분석으로는 김숙현, 「석주 권필의 우연풍자시 연구」, 인하대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그에 대한 깊은 시름과 연민을 우의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총 12구를 내용 중심으로 3단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마른 나무 가지에 세차게 바람 부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왜 동지를 보호해야 하는 지를 드러냈다. 동지 속에 힘없는 알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는 이미 부서졌고 알까지 깨져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의지할 데 없는 암수 한 쌍의 방황과 슬픔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참새가 동지를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의탁할 곳이 없었음을 말하였다. 이는 마치 소리 없는 외침처럼 힘없고 잘 들리지 않는 앓으나 무엇보다도 예리하면서도 진솔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黃雀何翩翩	참새가 왜 펄펄 날아서
寄巢枯葦枝	마른 갈대 가지에 잠시 깃드나.
江天喟然風	강 위에서 불어오는 빠른 바람에
葦折巢仍欹	갈대가 꺾여 동지까지 그대로 기울었네. <sup>18)</sup>

이 부분은 <감회 3수> 두 번째 수의 첫 단락에 해당한다. 시인이 참새 동지의 위험한 상황에 빗대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소(寄巢)’는 잠시 처소를 빌려 숙박함을 말한다. 참새가 펄펄 날아서 마른 갈대 가지에 깃들어 있음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시인 자신의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담은 것일 수 있다. ‘고위지(枯葦枝)’라 하여 애초에 뿌리가 튼튼한 나뭇가지가 아닌 언제든 흔들려 꺾일 수 있는 갈대, 그것도 이미 말라버린 갈대 가지에 동지를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암시하였다.

고단하고 곤궁한 시인의 삶 또한 마치 동지가 기운 참새의 모습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움을 알 수 있다. ‘위연(喟然)’은 감탄하거나 탄식하는 모양인데 여기

학고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29쪽 도표를 참고할 만하다.  
18)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2수, 1-4구.

서는 매우 빠른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세찬 바람 때문에 갈대가 꺾이고 그곳에  
튼 동지까지 기울어지는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여기서 백거이의 <영회(詠  
懷)> 시를 보면, 삶에 대한 바른 인식과 평소의 감회를 살펴볼 수 있다.

自從委順任浮沉	절로 순종하여 인간성쇠를 맡기니
漸覺年多功用深	점차 나이 들면서 공들인 보람이 깊어가네.
面上滅除憂喜色	얼굴에는 근심과 기쁨의 기색 없어지고
胸中消儘是非心	가슴 속에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도 사라졌네.
妻兒不問唯耽酒	처자도 묻지 않고 오직 술만 탐하고
冠帶皆慵只抱琴	벼슬도 모두 귀찮아 단지 거문고만 끌어안네.
長笑靈均不知命	참으로 우습구나 굴원이 천명을 알지 못하고
江蘼叢畔苦悲吟	물가 풀밭에서 슬피 읊던 모습. <sup>19)</sup>

위 시는 백거이가 감회를 읊은 시 중 한 편이다. 석주 <감회 3수> 중 두 번째  
수에서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드러냈던 바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백거이가 평소 품고 있던 회포를 읊은 것이다. 세파의 부침에 흔들리기를 고스  
란히 접하면서 자신의 수양에 공들이고 내면을 채웠던 바를 그리고 있다. 그래  
서 시인의 낮빛은 희로애락의 표정도 없어지는 평정심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석주가 온몸으로 세파의 영욕을 감수하였던 삶과도 비교된  
다. 석주는 시로 인해 임금의 총애를 받은 바 있고, 또 그러한 시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삶의 질곡을 겪었다.

백거이는 ‘관대개용지포금(冠帶皆慵只抱琴)’이라 하며 벼슬을 마다하고 거문  
고 타기를 즐겼던 바를 그려냈다. 다시금 군자의 천명(天命)을 일깨운다. 이는  
석주가 벼슬을 멀리하고 시업(詩業)을 천명으로 여겼던 바를 생각할 수 있다. 석  
주가 두 번째 수에서 보여주는 위급한 현실 상황에 대한 직시와 풍자로써 자신  
의 천명인 시작(詩作)으로 보국(輔國)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巢破不足惜    동지 부서진 건 아깝지 않지만

19) 白居易, <詠懷>, 『全唐詩』 卷430.

卵破良可悲    알까지 깨진 건 참으로 슬프네.  
 雄雌飛且鳴    암수가 날면서 또 울지만  
 日夕無所依    밤이나 낮이나 의지할 데가 없네.<sup>20)</sup>

앞 단락에서는 세찬 바람으로 인해 동지가 부서져버린 상황을 묘사하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내부의 처참한 상황을 직감할 수 있게 하였다. 부서져버린 동지의 상황과 잃어버린 새끼들로 인해 방황하는 자웅 한 쌍의 참새를 묘사하였다. 외부요인에 의해 무너져버린 실상에 대한 진한 슬픔을 담고자 한 것이다. 삶의 터전이 부서지고 그 안의 연약한 백성의 신음하는 모습을 담았다.

더욱이 자신들의 근거지와 새끼까지 잃고 방황하는 참새 한 쌍의 울음은 시대상을 꿰뚫은 시인의 울음이고 지식인의 비통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암울한 현실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실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새들의 방황은 조정과 관가의 도움과 협조를 받지 못하는 시인을 포함한 민초들의 절박함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君看彼黃雀    그대는 저 참새를 보게나  
 物理因可推    사물의 이치를 인하여 미루어 알 수 있네.  
 結巢豈不固    동지 틀기를 어찌 굳게 안 했겠는가만  
 所託非其宜    의탁한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네.<sup>21)</sup>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함께 현실을 인식할 것을 권한다. ‘군간(君看)’이라 하여 세상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인식할 것을 말하였다. 미물인 참새의 안타까운 사정을 당시 인간 삶의 한 부분과 연결시켰다.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냉철한 인식의 면모를 보인다. 석주는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정치 기반의 사상누각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천만의 요소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참새가 마른 갈대 가지에 동지를 틀어서 아무리 새끼들을 위해 견고하

20)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2수, 5-8구.

21)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2수, 9-12구.

게 하였어도 갈대가 꺾어버리니 튼튼하게 지어진 등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석주는 이를 여러 방면으로 비유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참새의 험난한 일상으로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나라의 실상과 식자의 학문하는 자세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겉모습을 치장하더라도 그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세찬 바람에 부서져 버릴지 모른다는 기본 철칙을 준엄하게 그리고 있다.

『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쓰고 근본이 확실히 서야만 도가 생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고 하였다. 또한 <위령공(衛靈公)> 편에서도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君子謀道, 不謀食.]”라고 하였다. 군자는 남이 아닌 나에게서 그 책임을 묻고, 유어리(喻於利)가 아닌 유어의(喻於義)에 그 진정성을 다함을 말하였다. 석주도 군자로서의 삶과 그 이치를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또한 조정(朝廷)의 어지러움은 백성의 삶의 근본을 흔들고 민초들의 고난을 야기함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감회시를 통해 냉철한 현실인식과 풍자 등으로 진정성을 표출한 시는 <팔음가서회(八音歌書懷)>(『石洲集』 卷之八, 雜體), <수시야좌영회(數詩夜坐詠懷)>(『石洲集』 卷之八, 雜體), <관사유감(觀史有感)>(『石洲集』 卷之七, 七言絕句) 등이 있다. 특히 <관사유감(觀史有感)> 시<sup>22)</sup>에는 “당시 다만 장성의 견고한 만 믿고, 함양이 전쟁터가 될 줄은 믿지 않았네[當時只倚長城固, 未信咸陽作戰場.]”라고 하였다.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의 경계를 표출한 것이다. 석주는 <감회 3수> 두 번째 수에서 동물의 위급한 상황에 빗대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주문하고 형상화한 것이다.

#### 4.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

본장은 <감회 3수> 중 마지막 수인 세 번째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도

22) “高起阿房切太蒼, 自誇功德擬三皇. 當時只倚長城固, 未信咸陽作戰場.” (권필, 『石洲集』 卷之七, 七言絕句)

총 12구를 3단락으로 구분하여 그 진정성이 표출된 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단락은 난초로 표상되는 지조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된서리로 표현한 세상의 풍파,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변함없는 군자의 자세로 지식인의 진정성을 담았다. 고결한 지조의 표상인 난초가 심어진 ‘구원(九畹)’을 갈망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를 되새기고 있다. 앞의 첫 번째 수(首)에서는 ‘불락(不樂)’이라 하여 즐겁지 않은 시인의 감정을 스스로 해소하고자 자연을 찾았으나, 오히려 그 자연 속에 노출된 여러 상황은 시인을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였다. 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하였다.

<감회 3수> 중 두 번째 수에서는 풍자를 통해, 시인의 절망과 슬픔의 원인을 고뇌하고 성찰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는 근본이 바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한 한탄과 뼈아픈 자각을 함께 인식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장에서 살펴볼 <감회 3수> 세 번째 작품에서는 시인이 추구하였던 삶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괴리감으로 인한 충돌로 착잡함이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석주는 평소의 소신대로 고결한 지조를 지켜나가며 지식인으로서의 자세와 시인의 염원을 담았다.

種蘭盈九畹	난초를 심어 구원에 가득한데
雨露日芳菲	비와 이슬로 날로 무성하고 아름답네.
坐冀枝葉茂	앉아서 바라기를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庶用充佩幃	이것으로 향주머니를 삼으려 했네. <sup>23)</sup>

이 부분은 <감회 3수> 시, 세 번째 수로 첫 단락이다. 시인이 지키고자 하는 지조의 삶을 표출하였다. 굴원(屈原)은 <이소(離騷)>에서 “내 이미 난초를 구원에 심었고, 또 혜초를 백묘에 심었네[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라고 한 바가 있다. 또한 “가을 난초를 엮어서 허리춤에 차네[緝秋蘭以爲佩].”라고 하였다. 이렇듯 ‘난초를 허리춤에 찬다’는 말은 고결한 지조를 뜻한다. 또한 ‘구원(九畹)’은 난초를 심는 것의 전고이다. 석주가 추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을 말하면서 난초가 가득함을 표현했고, 무성하고 아름다움을

23)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3수, 1-4구.

형상화하였다. 또한 난초의 향기를 지니고자 향주머니처럼 허리춤에 차고자 하였다. 지식인으로서 고결한 절조에 대한 진정성을 표출하였다.

『공자가어(孔子家語)』를 보면,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듯하여 오래되어서는 그 향기를 맡지 못하여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라고 하였다. 이는 고결한 절조를 갖춘 군자의 삶을 지향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사귄과 교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군자가 함께 처할 사람을 삼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석주 또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초와 난초의 향기를 지닌 군자의 삶에 대한 의미를 그려냈다.

嚴霜昨夜下	된 서리가 어젯밤에 내려서
百草倏已腓	온갖 풀이 갑자기 매우 시들어 버렸네.
杉篁尚不免	삼나무와 대나무도 오히려 면치 못하거든
況乃蕙蔭微	하물며 미약한 혜초와 채초랴. <sup>24)</sup>

<감회 3수> 중 3수의 두 번째 단락이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세파의 위기와 고난을 형상화하였다. 시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변 환경에서 오는 변화로 흔들리고 어지럽혀짐을 그리고 있다. 온갖 풀들은 이미 세파에 시들어 버렸음을 그리고 있다. 또한 강건하다고 믿었던 ‘삼황(杉篁)’마저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려냈다. 하룻밤 사이에 겪는 갑작스러운 풍파는 세한에도 곳곳한 삼나무, 대나무도 견디기 힘들음을 표현하였다. 즉 주변에서 굳건히 지킨다는 절조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갑작스런 된서리에 크게 흔들리고 변해 감을 묘사한 것이다.

자신 또한 평생 난초를 허리춤에 차고 향주머니로 삼으려 했으나, 주변에서 주는 고초로 인해 시달리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이다. 이는 석주가 시로써 곳곳하게 당대의 모순을 비판하였고 풍자하였던 바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 석주의 시는 늘 다른 사람에게 회자(膾炙)되고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화(筆禍)로 늘 고초를 겪기도 했고 결국에는 생(生)을 달리하게 되

24) 권필, 『石洲集』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3수, 5-8구.

었다. 그의 생전에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겪어야만 했던 시련과 고난의 폐해를 진중하게 그려낸 것이다.

仰視白日光	우리러 태양의 빛을 바라보는데
有淚霑我衣	눈물이 흘러 나의 옷을 적시네.
豈徒感時節	어찌 다만 시절만을 슬퍼하리오
君子有所思	군자는 생각하는 바가 있노라. <sup>25)</sup>

이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다. 시국에 대한 적시와 지식인의 자세를 담았다. 밝은 햇빛을 우리러 보노라니 눈물이 절로 흘러 옷깃을 적신다고 하였다. 일찍이 범중엄은 <악양루기>에서 “조정에 있을 때는 백성을 걱정하고 재야에 있을 때는 임금을 근심한다[居廟堂之高，則憂其民，處江湖之遠，則憂其君].”고 하였다. 석주는 ‘백일광(白日光)’을 우리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다. 이는 시로써 임금에 대한 충정과 그 진정성을 드러낸 것이다. 즉 석주는 재야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임금 곁에 직간(直諫)하는 어진 신하는 드물고, 오직 아첨하는 무리에게 휘둘리는 임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석주는 대안 없이 시절만 슬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군자라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함을 표출하였다. 즉 ‘군자유소사(君子有所思)’를 노래하였다. 이는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굳건히 하고자 함이다. 유자(儒者)로서의 역할과 시인으로서의 임무를 늘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천명이다. 당대 지식인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책임감과 소신을 표현하였다. 또한 지식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드러낸 것이다.

이색(李穡)의 <군자유소사(君子有所思)>라는 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자는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세 번 생각하고 또 곁하여 세 번 생각하네. 마음속이 밝고 밝아져서, 스스로 천지와 가지런해지네[君子有所思，三思又兼三。明明方寸間，自與天地參].”<sup>26)</sup>라고 하였다. 늘 군자의 기상을 유지하

25) 권필, 『石洲集』 卷之一, 五言古詩, <感懷 三首> 중 3수, 9-12구.

26) “君子有所思，三思又兼三。明明方寸間，自與天地參。中庸述天命，行路之指南。沈潛勿幽莽，氣象方巖巖。怠惰中枵然，他年當自慙。主一守敬字，水淨天光涵”(李穡, <君子有所思>, 『牧隱詩藁』)

면서 자칫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즉 항상 경(敬)자에 주일(主一)하여 군자로서의 절조를 굳건히 하고자 함이다. 마음속의 맑은 경지를 추구하는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자세를 보여준다. 석주도 마지막 구의 ‘군자유소사(君子有所思)’를 통해, 냉철하고 준엄한 지식인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인의 자세를 담았다.

이렇게 고결한 절조의 진정성을 담은 작품으로는 <추야감회(秋夜感懷)>(『石洲集』 卷之七, 七言絕句), <지난해 10월에 초당 주위에 소나무와 밤나무, 잡목 등을 신 그루쫂 심었다. 봄이 온 뒤로 가뭄이 심해 거의 말라 죽었는데, 바위틈의 작은 소나무만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기에 감회가 일어 짓다[去年十月, 環草堂種松栗雜木僅五十株. 春來旱甚, 枯死殆盡, 獨巖隙小松, 蒼翠依舊, 感而有作]>(『石洲別集』 卷之一, 七言絕句), <야우서회(雨夜書懷)>(『石洲別集』 卷之一, 五言絕句)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야우서회(雨夜書懷)>는, “강남 사람에게 묻노라, 매화가 몇 가지나 피었는가[爲問江南人, 梅花幾枝發].”<sup>27)</sup>라고 하여 지조와 절조에 관심을 두었던 바를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시에서는 “뉘 알았으랴 한 척 남짓한 바위틈의 땅이, 외로운 소나무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을 줄[誰知一尺巖間土, 能使孤松自在青].”<sup>28)</sup>이라 한 바가 있다. 이는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也].”고 한 바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를 담고자 한 것이다.

卷之十五)

27) “微雨夜廉纖, 曉風吹作雪. 爲問江南人, 梅花幾枝發.” (권필, <雨夜書懷>, 『石洲別集』 卷之一, 五言絕句)

28) “種木莫須誇得地, 春來枝葉摠凋零. 誰知一尺巖間土, 能使孤松自在青.” (권필, 『石洲別集』 卷之一, 七言絕句)

## 5. 맺음말

본고는 석주 권필의 <감회 3수>를 연구한 것이다. <감회 3수>에 나타난 진정성을 고찰하였다. 석주 권필은 조선 중기 정치적 혼란 속에 치열하게 세상과 대면하며 비판적 인식을 갖추었던 시인이다. 그동안의 그의 시적 성취는 다방면에서 연구되었으나, 감회시를 주제로 한 논의는 아직까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감회시는 보통의 느낌과 서정, 또는 제목을 달기가 모호한 서정시일 경우 감회의 제목을 달기도 한다. 그러나 석주의 <감회 3수>는 감회에 의탁하여 시국에 대한 강한 페이소스와 지식인로서의 자세를 담았다.

석주의 감회시에서는 나그네의 회포와 계절에 빚댄 쓸쓸한 정서 등을 다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감회시에서는 세월의 덧없음, 인생무상, 곤궁함, 정치적 불운에 대한 회포를 읊는다. 그러나 <감회 3수>는 감회에 의탁하여 시국에 대한 근심과 비판을 예리하게 그려냈다. 즉 <감회 3수>는 시국에 대한 비애감과 냉철한 현실 인식과 풍자, 그리고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의 표현이 주조를 이루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에서는 시국에 대한 비애감을 실었다. 자연의 밝고 깨끗한 분위기와 시끄럽고 소란스런 세상 속에서 홀로 시를 읊조리는 고독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전체 4단락으로 구분했을 때, 1단락은 불락(不樂), 2단락 미인(美人), 3단락은 초혼(楚魂), 4단락은 방준(芳樽)으로 그의 비애감(悲哀感)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수에서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풍자를 담고 있다. 참새와 마른 갈대, 그리고 부서진 등지와 ‘위연풍(喟然風)’으로 세차게 부는 바람을 묘사하고 있다. 우의적인 비유를 통해 시대상을 풍자하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위급한 상황에 등지 속에는 알까지 있었다. 나라의 근본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여린 백성이 그 위협 속에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세 번째 수에서는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를 표현했다. 난초가 무성한 ‘구원’을 통해 고결한 삶의 자세를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을 표출하였다. 임금에 대한 충정으로 아첨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인 조정의 한계를 근심하였다. 그러나 석주는

대안 없이 시절만 슬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군자라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함을 표출하였다. 즉 ‘군자유소사(君子有所思)’를 노래하였다. 이는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굳건히 하고자 함이었다. 당대 지식인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책임감과 소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감회 3수>는 첫 번째 수부터 세 번째 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국에 대한 불안과 애민의 정서를 실었다. 이를 각각의 작품에서 시대에 대한 비애감과 냉철한 현실인식과 풍자, 그리고 지식인의 자세와 절조를 통해 그 진정성을 담고자 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고충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조선의 산천과 백성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본고는 석주 감회시 연구에 대한 일고(一考)로 그의 감회시가 보여주는 한 흐름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권필, 『석주집』, 한국문집총간 75, 한국고전번역원.

이색, 『목은고』, 한국문집총간 3, 한국고전번역원.

이식, 『택당집』, 한국문집총간 88, 한국고전번역원.

이정구, 『월사집』, 한국문집총간 69, 한국고전번역원.

윤증, 『명재유고』, 한국문집총간 135, 한국고전번역원.

장유, 『계곡집』, 한국문집총간 92, 한국고전번역원.

강준만, 『생각의 문법』, 인물과사상사, 2015.

권순열, 「石洲 權韜 研究」,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3, 169-194쪽.

(UCI: G704-SER000001883.2013..25.001)

金成文, 「杜牧〈感懷詩〉試探」, 『中國學研究』 5, 중국학연구회, 1990, 55-83쪽.

김숙현, 「석주 권필의 우연풍자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文明淑, 「梅堯臣時 研究」, 『論文集』 21, 聖心女子大學校, 1989, 55-76쪽.

성범중, 「석주 권필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429-461쪽.

심경호, 「해제」, 『국역 석주집1』, 민족문화추진회, 2006.

윤정구,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한언, 2012.

장유승, 「17세기 古詩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2.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황수정, 「석주 권필 제화시(題畫詩)의 형상화 방식」,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311-340쪽.

\_\_\_\_\_, 「〈題群山二友圖〉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55-184쪽.

| Abstract |

## A Study on Seokju Gwon Pil's <Gamhoi 3su>

Hwang, Su-jeong

This study speculated on Seokju Gwon Pil's <Gamhoi 3su>, focusing on truthfulness he intended to express in his poems. Gamhoisi means sentimental poems to express what one feels while reflecting the past. Gamhoisi is entitled as usual feelings, lyricism, and Gamhoi for lyric poems which are ambiguous to be entitled.

Seokju's <Gamhoi 3su> expresses strong pathos on the situation and attitudes as an intellectual. Most of the Seokju's Gamhoisi dealt with criticism on reality and lonesome feeling through a traveler's inmost thoughts. In particular, <Gamhoi 3su> honestly described anxiety and criticism about the situation depending on his feelings. We could make a guess of truthfulness of Gamhoisi through truthful feeling the poet showed in <Gamhoi 3su>.

Usually, Gamhoisi expresses evanescence of time, the frailty of human life, poverty and political misfortune, <Gamhoi 3su> published in pathos on the situation, stoical recognition and parody of reality, and virtuous integrity. That is, <Gamhoi 3su> has meaning in that it was intended to make us meditate on the situation and attitudes as an intellectual beyond the poet's political misfortune and depression.

**Key words** : Seokju Gwon Pil, <Gamhoi 3su>, sense of pathos, recognition of reality, integrity.

